

特 輯

虛脫한 養鷄業界

業界重鎮들의
現況診斷과
전망을 들어 본다

설문

1. 불황의 원인 및 장기화이유
2. 전 망
3. 불황의 조기종식 방법
4. 안정된 양계를 위한 제언
5. 양계정책의 개선 시정 요망사항
6. 양계업자에게 바라는 것
7. 업계 당면문제와 해결방안

蘇生策은 무엇인가?

계란·닭고기
소비확대에
注力해야 할 것



吳世正
(大韓養鷄協會長, 建國大教授)

1. (1) 크게 보면 75년부터 계란과 닭고기시세가 비교적 높아 생산규모의 확대와 생산비의 과다로 보아야 되고

(2) 근간에 와서 난가가 78년 8월 중순부터 10월중순까지 급상승이 있었으며 육계는 78년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생산과다에다 수입쇠고기의 저렴한 공급으로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며

(3) 부화장에서 지난날 호황을 누림으로 인하여 생산규모의 확대로 조생추의 과다한 공급이 초래되었으며

(4) 불황후에는 호황이 오며 설마 곧 회복되겠지하는 심리와 상호불신과 지나친 경쟁의식 및 이기주의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5) 정확한 생산통계의 부재와 유통의 불합

리, 특히 유통상인들의 부당한 과다이득으로 소비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 (1) 과거 73년도와 같은 유통과동과 물가고, 경제불안, 은행의 대출제한, 소비절약운동의 전개로 난가와 육계값의 상승전망은 매우 암담할 것으로 예상,

(2) 쇠고기값의 상승이 없는 한 계육의 가격은 크게 회복되기 힘들 것이 예상,

(3) 79년말에는 회복이 될것 같으나 전반적으로 불황의 연속으로 계속될 것이 예상.

3. (1) 산란계는 노계를 조기도태하여 생산비를 감소시키며 육계는 약 20%입추를 감소시켜 생산비를 조절.

(2) 수입쇠고기를 적게먹고 값싸고 영양가 높은 국산 계란과 닭고기를 먹는 캠페인을 전

개하여 소비확대.

(3) 생산자들이 직접 유통에 참여하며 계통 출하와 전문공판장 개설.

(4) 계육과 계란의 영양가치 인식제고와 상품가치의 향상으로 소비촉구.

(5) 수입쇠고기의 공급을 수요량의 20%정도로 낮추며 가격을 3,000원이상 등급제 실시.

(6) 강력한 입란제한조치와 통제.

(7) 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의 지원. 확충으로 수급안정과 가격의 조절.

(8) 사육자들의 협력, 단결로 권익보호.

4. (1)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하며

(2) 사육자들의 등록과 사육쿼터제 실시.

(3) 양계조합의 구성으로 계통구관사업실시.

(4) 양계산업안정기금조성

(5) 저장시설의 확충과 가공품의 개발로 식품의 다양화

(6) 양계산업진흥법의 제정

(7) 생산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며 직매점 운영

(8) 단계적으로 계열화 생산체제형성

5. (1) 양계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양계진흥법의 제정과 기금조성

(2) 저장 및 가공시설, 도계장 시설의 지원

(3) 계란과 계육전문도매시장 설치

(4) 양계산업분야에 세율인하조정

(5) 기계화 촉구를 위하여 외국에서 도입되는 기구 및 기계에 면세 혜택.

(6) 방역대책에 적극적 지원.

(7) 가금연구소를 설치, 육종개량, 이용가공, 사양, 질병, 경영등 전반적인 문제를 연구개발과 지도사업을 전담한 기구설치운영.

(8) 사료품질관리에 자율성과 가격 통제를 해제.

(9) 양계진흥기금조성을 위하여 양계사료에 1~2/1,000 부가 거출할것.

(10) 양계농가에 등록제실시로 정확한 통계 수립과 수급조절강화

(1) 양계특수조합구성촉구와 지원

(2) 시설근대화촉구를 위하여 자금지원

(3) 매주토요일은 닭고기 먹는날로 제정하여 쇠고기 대신 닭고기로 소비유도하며 설령탕, 곰탕을 닭곰탕, 삼계탕 등으로 대체

6. (1) 상호 불신풍조를 없애고 인화, 협력, 단결하여 스스로 권익을 보호받도록

(2) 지나친 규모의 확대보다 내적충실로 생산성을 제고

(3) 방역위생에 더욱 철저히 신경쓰도록.

(4) 협력하여 유통개선과 소비촉진에 참여

(5) 시설의 근대화와 분업적인 계열화 생산체제 구성

(6) 정확한 생산통계 보고를 이행

(7) 기장기록을 철저히하여 스스로 경영분석과 사업검토를 하여 개선하도록.

(8) 항시 장의와 의욕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신념과 긍지로서 실천

(9) 양계분야에서 돈을 벌고 사업이 확장된 사람은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참여하고 봉사하는 정신적 자세가 있어야 될 줄 안다.

(10) 남의 탓이나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스스로 반성하며 신의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

(11) 양계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빠짐없이 협회에 가입하여 적극참여하며 상호공생,공영,공익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나친 이기주의나 사리에만 급급하지 말고 봉사할줄 아는 사명감이 선행되어야 밝고 명량한 사회, 양계산업이 될 수 있다.

G. P. S 농장에서 철저한 생산조절을



吳 鳳 國

(서울대 농대교수)

불황은 하나의 증상이며 증상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증상을 낳게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1.(1) 불황원인은 한마디로 생산과잉에 있다. 생산과잉을 낳게 한 근본요인은 1975년 이래 일찌기 볼 수 없었던 호황으로 인하여 닭 사육수수의 급격한 증가와 사육규모의 대형화, 종계의 과다사육, 부화장의 난립과 규모확대, 사료공장의 확장과 무제한공급 등 여러가지 요인을 들 수가 있다. 첫째 닭 사육수수는 1966년도에 2,600만수 이던것이 '78년 6월말에는 4,765만수로 183%가 증가 되었으며 사육규모도 1,000수 이상 사육수수가 전체수수의 70%를 차지하고 전업이상 양계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53%나 되어 양계업은 완전히 전업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종계확보수수의 과다와 부화장의 난립이다. 양계협회에 등록된 종계수수만도 채란계종계가 78만수로서 연간 병아리 생산량이 4,700만수가 되며 등록되지 않은 종계수를 감안한다면 수요량의 200%를 훨씬 넘을 것이다. 그리고 부화장은 전국에 허가된 부화장만도 286개소

있으며 무허가 부화장까지 합친다면 1회 입란능력은 3,000만수를 초과할 것으로 추측되어 엄청난 병아리의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등록된 육용종계수수가 100만수가 되며 미등록종계를 합친다면 연간 브로일러 초생추 공급량은 1억5천만수로 추측되어 과잉생산을 초래할 소인이 충분하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것이 바로 양계사료의 생산량 급증이다. 육계사료는 1976년에 비하여305%가 증가 했으며 산란사료는 161%가 증가 하였다.

(2) 일반의 경기침체로 소비위축을 초래하고 있어서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금년 들어서 국제적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정부의 인플레이제제를 위한 긴축재정 정책등 이 소비억제를 초래하고 있어 계산물의 소비전망이 밝지 않을뿐만 아니라 양계업의 불황을 가속화 하고 있다.

(3) 계산물의 소비촉진산업의 부진과 유통구조의 마비상태를 들 수 있다. 달걀과 닭고기는 다른 축산물 즉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하여 탄성치가 낮기 때문에 비록 영양분이 풍부하고 값이 싸다해도 국민의 기호성이 낮아 소비가 부진한 품목이다. 그러므로 다른 축산물보다 소비촉진을 위하여 힘을 써야하며 일반 소비자 기호에 맞는 조리방법을 개발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닭고기나 계란의 유통과정은 전 근대적 시장유통을 답습하고 있어서 생산자 가격은 폭락하여도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소비를 억제하고 있으며 계절적 또는 기별 가격변동이 심하여 가격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생산자에게 불리한 손해를 주고 있다.

(4)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등이 과다히 공급되어 계산물의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상 열거한 요인들이 크고 작고간에 오늘의 양계불황을 초래한 원인이며 이것을 타개하는 데는 양계업자들의 공동노력과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총화 단결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달걀소비량이 100개, 닭고기는 2.4kg 정도 소비하며 전체 육류소비량의 25%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선진국의 달걀소비량의 3분의 1, 닭고기는 10분의 1 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한 계산물의 수요는 계속 신장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계산물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곧 양계업의 전망이 밝다고는 할수 없는 것이다. 원래 양계산업의 특징은 집약성과 양산성을 지니고 있어서 성장할 여지가 많은 나라라 할지라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불경기는 항상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양계산업과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고 자립기반이 미약한 산업에 있어서는 내외적으로 불안요소를 안고 있으며 더욱이 생산과잉에 대한 제어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여건하에서는 정책적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불안한 산업중의 하나이다.

또한 '75년 이후의 양계 호황은 자본의 축적이 규모의 확대와 재생산 기반조성에 투입되어 자연도태에 의한 생산조절이 장기화될 전망이 크며 양계업의 출혈도가 높고 불황의 상처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수해대책을 위하여 흐르는 강물을 어디서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한강상류에 위치한 소양강댐과 같이 물줄기의 상류에서 막는 것이 홍수조절을 위하여 효과적일 것이다.

양계산물의 생산과정을 살펴보면 물줄기의 원천은 P.L 또는 G.P.S 농장이고 종류는 P.S 농장과 부화장이며 하류는 채란농장과

브로일러농장이라고 가정 한다면 하류로 내려올수록 물줄기가 넓고 지류가 많아서 뚝을 만들기가 곤란하다. 제일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은 G.P.S 농장인 상류에서 견고하고 높은 댐을 구축하여 수문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상류의 물줄기는 P.L 농장에서 생산되는 국산 종계와 외국에서 수입되는 종계의 2 가지 주류가 있는데 필요한 양만큼의 공급을 위하여 상류에 댐을 만들고 수문의 개폐를 적절히 조절한다면 홍수는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나라 양계불황은 댐도 만들지 않고 물의 근원지를 개방하고 있어서 2 주류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막을 길이 없어 상류의 거센 물결은 중류로 내려오면서 홍수피해를 주기 시작 하였고 하류에 와서는 완전침수상태가 되어 가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참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댐 구축의 필요성은 수년전부터 필자는 회유했을 때 막다 강조한 바 있거니와 호황시에 댐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도 역설한 바

있다. 홍수피해가 극심한 지금에 와서 불황 대책을 논한다는 것은 풀을 보지 않고 풀을 벨출아는 상농이 하는 일을 풀을 보고도 풀을 매지않는 하농에 가까운 일을 하고자 시도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양계인은 지금이라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하여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다. 6월호 월간 양계지에 게재된 편집인의 "안테나"의 기사와 같이 포수와 참새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강상류에 뱀을 구축하는 일은 바람직 하기는 하나 장기공사이다. 속효성 공사란 원래 지속성이 없으며 효과도 미약하다.

첫째 방안은 불황 예보와 함께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방법이다. 홍수에 휘말리지 않게 생산자에게 미리 알려 입추조절을 시켜 더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황예보를 촉구한다.

둘째는 침수지대에 양수기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며 구원요청을 한다. 생산품을 진흥기금을 동원하여 수매하고 비축하는 한편 군납과 기숙사 급식용등으로 대량소비기관에 구원요청을 하여 소비증대책을 강구한다.

이러한 방안은 언제까지나 임시적이며 일시적인 구제책이다. 자체방어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방어장치의 하나로 P.S농장이상의 허가부화장을 통제하는 방안이다. 우선 전국의 허가부화장 286개소의 부화업주가 전원 참가하여 부화조절기구를 설립한다. 강력한 조직력과 행정지도력을 갖추기 위하여 각부화장이 규모에 따라 종란 1만개입란 부화기 한대당 100만원의 공탁금을 납입하도록 한다면 총 부화능력 2,500만개에 대하여 2,500대의 부화기에 해당하는 2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게되고 여기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조직체의 운영을 하도록하며 정부는 축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한다. 이 조직체의 역할은 저수지의 수문 역할을 하여 초생추의 출하량

을 규모에 따르는 할당제로하여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는 수문개폐로 하여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는 수문개폐작용을 하는 한편 전국에 감시원을 파견하여 무허가 부화장과 불량추 생산업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허가부화장에 대하여는 배당된 부화량만큼 생산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도록 하는 자율적 통제방안이 가장 바람직 하다. 물론 여기에는 이해가 상반되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조직과 행정력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난점들이 있기는 하나 홍수의 재난을 공동의 노력으로 막는 길은 이 방법이 가장 실효성이 있고 해 불만한 방안이다.

4. 양계업과 같이 투자에 대한 회임기간이 짧고 집약적이며 망산할 수 있는 산업은 항시 생산과잉과 과다경쟁이 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제어 장치없이는 심각한 불황은 면할길이 없다. 그러므로 양계산업의 안정화를 위하여는 수요의 예측과 적절한 공급으로 안정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구로는 선진국의 계란위원회(Egg Board)나 브로일러 위원회(Broiler Council)과 같은 예를 들 수가 있다. 또한가지 방안으로는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거나 기업이 중심이 되어 계열화운영방식을 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안중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생산자 중심의 Board System이 바람직하고 다음은 생산자 협동조직으로 계열화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

5. 부모의 심정은 자식 여러형제를 놓고 볼 때 어느 자식도 소중하지않는 자식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계산업에 대한 과거 정부의 용자사업을 분석해 보면 양계업은 확실히 소

외당한 차식처럼 생각된다. 물론 보호, 육성 없이도 잘 자라고 있다는 이유와 더 급하고 더 보살펴야 할 축산분야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이해는 할 수 있다. 외관상 양계업은 급성장하고 규모가 비대해 진진 사실이나 기반없는 과비는 건강의 적신호로 받아 들인 수도 있는 것이다. 양계업의 기반조성이란 종계의 자급개량과 경영의 근대화 그리고 유통구조의 개선책이다. 우선 종계의 개량사업이란 종계의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수한 종계의 자질을 생산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종계장과 부화장의 시설개선과 철저한 위생과 방역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마련되어야 하며 양계장의 성력화를 위한 시설자금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조직과 시설의 기반조성을 위한 행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강력한 행정지도와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망된다. 종계등록과 부화장의 허가제 등을 비롯하여 업계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마련된 법은 있으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제대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하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여 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일단 필요에 의하여 마련된 법이나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다소 부작용이 있다해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므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준법정신이 발휘되어

업계의 발전과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6. 양계업제는 과거 수차에 걸쳐 오늘과 같은 불황을 겪은 바 있다. 우리는 양계선진국들이 우리가 겪은 것과 같은 불황을 겪으면서 타개해 나온 발자취와 제도를 연구하고 평가하여 이들의 걸어온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알맞는 불황대책을 미리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대체해 나가는 슬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하여는 양계업계 전체의 안정적인 발전과 공영 공존한다는 대의하에 다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해도 소아를 버릴줄 아는 슬기를 발휘할 때가 왔다고 사료 된다.

지금까지 양계업제는 축산분야 중에서도 가장 단결이 잘되고 협조가 잘되는 업계풍토를 자랑해 왔으며 그러한 결과가 오늘의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어느시대에도 다소의 불평과 갈등은 있는 법이다. 이러한 불평과 갈등은 대화와 이해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서 궁지와 슬기로서 불황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다 같이 참여하고 노력하여 주기를 바라며 전국 양계인의 분투와 저력을 과시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生産調節과 유통구조의 혁신 시급

朴 根 植

(대한양계협회 부회장)
가족위생연구소 계역과장



1. 우리나라 양계는 당초부터 양계산업을 정 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고 양계인들의 자율

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정책인데 비하여 그동안 양계업은 자율화를 기할 수 있는 기틀을 조직이나 제도 및 기능면에서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동안 경기의 잠정적인 안정이나 호황은 일반인이 양계에 대거 참여하는 소지가 마련 된데 때맞추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되었으며 병아리를 공급하는 부화업은 제동이 되지 않아 무제한 공급이 뒷받침 되면서 비롯되었다. 특히 병아리의 생산에서 배부, 양계산물의 생산공급 및 유통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전문적인 직업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이들이 양계관계 단체에 극소수의 일부만 참여해왔기 때문에 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효과를 얻지 못하므로써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본다.

2.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자연법칙에 따른 즉 현재의 수준에 요구되는 양계산물의 량 이하로 생산이 조절 될때까지는 계속 되리라 보며 앞으로의 시책여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것으로 전망되나, 경기 회복은 예상외로 늦어질것으로 관망된다. 뿐만아니라 금번의 교훈을 어떻게 소화시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기전에는 2-3년만에 한번씩 격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조기종식방법은 C.C생산을 적절하게 생산을 조절하는 처방이 유효하다.

다소 먼곳을 바라본다면, 양계산물의 소비의 대중화를 위한 대책과 유통구조에 혁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가. 종합적인 양계진흥계획의 수립과 집행 양계발전 방향과 단계적인 발전책(미국의 가금개량 계획참조)

나. 부화장과 종계장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고, 생산조절 기능을 제도화.

다. 계열생산제도의 도입운영을 하거나 양계의 직업화 또는 전업화와 생산자를 광범위하게 조직화한 생산자단체의 결성방안.

라. 계열생산 제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호

주와 같은 생산쿼터제 또는 양계등록제도를 적용.

마. 양계산물의 처리가공업자의 유도과 산물의 소비대중화 및 양계산물의 고유의 식품 활용 가치의 향상

5. 양계산업을 자율화할때는 그 중추역할을 담당한 기구나 조직을 강화하여 양계진흥 마스터프랜을 제출케하고 정책면이나 제도면에서 지원해야할 사항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해결방안을 모색토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극 관여하여 계획의 입안부터 시행, 점검을 직접 담당하여야 할것이다. 현재까지는 자율적인 조절기능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6. 현재까지의 정부의 시책이 양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져 왔는데 비하여 양계업자되시는 분들은 이와같이 자율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에도 규범이 있고 스스로가 양계산업을 맡은 이상은 어떤조직에 한분도 빠짐없이 관여하여 자기의 업종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스스로가 조직에 참여하여 규제하고 규제받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필요에 따라서는 강력한 시책의 요구, 관여등도 여러분들의 생업과 직결되므로 이러한것은 누구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오늘의 자기알가림에만 급급하지 않고 내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어떤조직에 적극 관여하여 우리들의 사업은 우리들의 손으로 해결하는, 태도의 민주양계인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되면 생산조절도, 질병도 두려워할것이 없다. 여러분들의 큰 힘을 하나로 모을때는 어떠한 것도 (뉴켓슬병까지도) 두려운 것이 없을 것이다.

7. 가. 강력한 생산자단체의 구성.

정부에서 생산자를 결속시키는 작업을 착수하여 이들의 기능이 자율화될때까지 지원.

나. 양계중 육계가 보다 불안정하므로 육계의 계획생산을 유도하여 과잉생산에서 비롯되는 가격하락, 생산성의 저조, 각종전염병의 전파등의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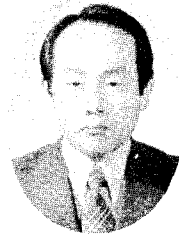
다. 도계유통을 일부지역에 국한함으로써 세계문제등에 의한 불공평을 초래케 되므로 생계유통을 막고 위생처리된 도계품만을 유통시켜, 양계산물의 식품가치성을 높인다. 따라서 1976년의 파동으로 자본가의 도계가공분야의 투자기피를 해소하여 적극 이 분야에

자본이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계및 가공에 금융지원 및 도계장비의 도입에 세제상의 특혜를 주어 이 분야의 발전에 정부시책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라. 축산진흥회는 우리나라 축산의 30%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양계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양계산업의 당면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노력경주가 아쉽다.

마. 가금질병의 예방을 위한 민간방역기구의 설치로 정부방역과 공동으로 방역의 실효를 거양.

과감한 산란노계 도태를 위해 업계 공동 노력해야



김 정 응

(천호부회장 상무)

1. 가. 75년 이래 78년11월 초순까지 정부의 고도성장정책에 의해 모든 경제부분이 호황을 누려왔고, 따라서 양계산업 부분도 급속도로 성장 팽창해 왔음.

이익의 증대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졌고 축적된 자본은 생산시설확충에 투자 되었으며 추가해서 신규투자도 많았으리라 생각됨.

나. 79년 금년 들어서, 정부는 인플레이저를 위해, 금융긴축정책, 소비절약, 물가현실화 및 유류가인상에 따른 제반 공산품가격인상조치 등을 실시해오고 있으므로 전반적 소

비위축 상태가 일어나고 있음.

다. 78년 상반기에 채란계 P.S 및 육계 P.S의 입식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육계의 C.C생산량은 78년 11월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78년 상반기에 입식된 종계가 공히 78년 11월~79년 3월까지 산란 peak 를 지나면서 육계 C.C의 과잉출하로 특히 육계 비수요기에 과잉생산됨으로써 5개월간 불황을 초래했음.

이 불황은 2월의 산란계 노계도태 시기에 노계 도태를 방해하므로써 채란계업 쪽에도 불황을 재촉하게 되었다고 생각됨.

한편 채란업은 78년의 초생추 입식이 77년에 비해 40% 증가하므로써 78년 10월 이후부터 총채란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생산량의 피크는 78년 12월부터 시작되어 79년 5월 현재도 상승세에 있다. 채란 생산량은 작년 5월에 비해 금년 5월에 5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육계업은 78년 상반기에 입식된 P.S의 산란피크는 지났으며 5월부터 C.C생산잠재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8월에는 C.C 생산량이 금년 1월과 2월의 생산량의 60% 수준으로 감소되며, 78년 8월 수준과 비슷해 질 것으로 추정되므로 육계경기는 추석시기까지는 좋을 것으로 예상됨, 단 3월초에 제육수매 비축이 실시되면서 육계가격이 일시적으로 520원까지 올라갔을때, 각 부화장들이 일시에 대량입란을 한 것으로 보여 5월20일부터 6월 10일 사이의 육계가격은 불안한 조짐이 있을 것임.

78년 하반기와 79년 상반기의 PS 입식량은 걱정할 정도의 숫자는 아니므로 육계가격은 80년 상반기까지는 생산자에게 적정수익이 보장되는 선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채란업은 불황의 원인규명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78년 초생추 입식이 과다했으며, 1/4분기에도 적지 않은 양이 입식되므로써 하반기에도 경기가 회복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한가닥 희망을 걸어본다면, 금년 육계성수기인 7월과 8월에 노계도태가 심하게 이루어지면 불황은 어느정도 단축될 것으로 생각됨.

3. 채란업에 관한 한 뾰족한 묘안이 없을 것

같다. 인위적으로 불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노력한다면 산란계 노계의 군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모르지만, 소비 위축에 생산과잉 상태를 조기 종식시키는 방법은 없으며 노계를 도태할 수 있도록 정부나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음.

채란업자는 노계도태와 산란율이 낮은 개체를 과감히 도태하므로써 생산성을 높혀 불황을 극복하는 길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됨.

육계업은 특별히 인위적 조치를 가하지 않더라도 당분간 극심한 불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어떠한 기업이던 안정된 경영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기업 경영은 경영내부의 요인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영외적요인에 의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양계업의 경영을 안정시키려면, 양계 선진국처럼, 대규모 기업과 계약하여 육계 또는 채란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 생산자는 원가절감, 단위 생산성 제고 등으로 생산에만 주력하고, 원자재(초생추, 사료 등)의 구입과 생산물의 판매는 계약된 대규모 기업에 의존하면, 이익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발생된 이익금 범위 내에서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불경기에 대비하여 운영자금에 여유를 갖는다면, 불황이 오더라도 안정된 양계가 가능할 것이다.

5. (1) 현행법상으로 부화장은 허가사항이고 종계장은 등록사항인데 현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부화장과 종계장이 동일사업자에 의해 경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초생추라는 상품의 생산과정중 종란생산업자 다르고, 부화업자가 달라서는 초생추의 품질 보장이 어렵다.

부화장과 종계장의 규모가 영세한 경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기술자 고용이 불가능하다. 경영자가 생산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축산을 공부한 기술자 또는 수의사를 1명 정도는 고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는 초생추의 품질은 보장될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부화장 허가사항에

① 부화장 생산규모에 적합한 규모의 종계장을 소유하도록 하고,

② 축산학을 4년제 정규대학에서 전공한 사명감있는 기술자 또는 수의사를 상시 고용하도록 하여 품질향상을 기하고,

③ 부화능력의 증가는 수요량을 감안하여 탄력성있게 조절한다.

(2) 그동안의 양계업 호경기로 무수한 허가 또는 무허가 부화장 및 종계장이 난립하므로써, 초생추의 과잉 입추현상이 발생 했다고

보여지므로, 불실한 무허가 부화장 및 종계장을 대폭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차제에 부화장 및 종계장의 근대화정책이 수립되어 양계업자들이 「능력이 우수하고 건강한 초생추」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생추의 과잉생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양계 산업발전을 위해 시급하다고 사료됨.

(3) 사료의 고시가격제도를 자유가격제도로 바꾸어 주기 바람. 자유가격제도와 충분한 사료원료공급이 이루어지면 사료회사들은 사료의 품질향상을 통해 판매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계업자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사료효율의 개선이 시급하다.

(4) 축산진흥회의 축산물안정기금중 옥수수계정의 60%는 양계산업발전 특히 근대화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과잉이 절대적 불황요인임을 모두 인식해야



辛 正 一
(유일농원 영업부장)

1. 금번 불황의 원인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들고싶다. 첫째가 절대적인 생산과잉현상이다. '78년도까지 몇년간 계속된 호황이 부화량과 일반생산업계 공히 팽창을 유도했다. '78년도는 경쟁적인 규모확장으로 1년동안 계속 들떠 있었다.

둘째는 전체 산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현상이다. 78년도 8.3조치(부동산 투기

억제조치)와 올해부터 시행된 과감한 긴축정책은 지난 겨울동안에 명동의 의상실중 약 100개 이상이 문을 닫게 했다. 닭고기는 서민 식품이라 공사장의 근로자에 의한 소비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건설경기의 위축을 자연적으로 계육소비의 위축으로 나타났다. 세계는 수입육류의 압박으로 볼 수 있다. 생산자 가격이 하락되어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계육

가격은 변동없으며, 값싼 수입육류(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등)가 무제한 방출된 현상은 주부들의 발걸음을 푸줏간으로 몰아 부쳤다.

최근 계속된 호황은 부화와 생산업체 모두 자금의 능력을 비대시켰고, 금번 불황의 지속이 짧게 끝나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생산이 이루어 졌으며, 그러므로 78년 12월부터 79년 5월초순까지 무려 5개월간의 기나긴 불황현상으로 나타났다.

2. 올해는 5월의 기상상태가 다행히 매우 좋았다. 농촌에 필요한 강우량도 적절하게 내렸으며, 동시에 닭고기소비의 관건인 쾌청한 날씨도 계속되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사실 양계업체의 구세주였다. 이제 더운 여름을 앞두고 있으며, 수입쇠고기의 농협공판장 국한판매를 실시한 농수산부의 과감한 결단은 제육소비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약 5개월간의 불황을 겪은 업체는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병아리 생산의 격감과 입추량의 감소로 이번 여름의 성수기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5월 중순 현재 부화장의 병아리는 부족하지만 생산자의 입추의욕은 옛날과 달라 전체 입추량이 50~60%정도로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화생산량의 저력은 아직 많은 것 같다. 팽창되었던 규모가 불황에 의해 조정되었지만, 앞으로 확대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므로 경기의 부정기적인 변동(호불황의 수시 변동)이 자주 나타날 요인이 있다고 본다. 장기적인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만 단기적 전망은 좋을 것이다.

3. 인위적인 경기조절은 극히 어려우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전체 경기의 흐름에 맞는 방법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4. 자유경제하에서 산업의 호불황은 항상 있게 마련이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산업에 중

사하는 개개인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경쟁에 승리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은 산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이것이 바로 자유경제체제의 장점이다. 안정된 양계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이와 같은 경제원칙에 입각하는 길밖에 없으며 이것이 가장 자연스런 상태일 것이다. 다만 이외에 서로 협조하므로써 얻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확한 통계와 업체의 정보를 신속히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이해시킴으로써 보다 깊은 수렁에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경제에서 생산량의 확대나 축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사업자 자신이 한다. 어떤 불황의 위기가 왔을 때 타인의 힘에 의하여 극복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어떠한 것인가? 계속적인 불황도 있을 수 없으며, 계속적인 호황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적절한 수익이 보장된 계속적으로 안정된 산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5.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물질적인 상황으로 국가를 판단하는 20세기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바로 경제의 발전을 뜻하고 있다. 산업이 발전함에 있어서는 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업체와 이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 당국으로 대별된다.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당국의 정책결정이 산업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국에 바라는 사항은 양계업체를 장려하고 키우는 방향의 정책을 실시해 달라는 것이다. 관리기술이나 업체의 호불황이나 기타 모든 사항은 우리 업체가 책임질 것이며 감수할 것이다. 그러나 당국에서 해야할 일 즉 양계업체를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정책면에서 장려하고 확대시키는 길로 이끌어 달라는 것이다. 양계업체의 장려책에 대해서는 업체나 학계의 유명한 분들이 많은 방법을 제시

하고 있고 또한 방법은 분명히 모두 알고 있다. 다만 양계업계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하기야 농업의 가장 핵심인 쌀까지 수입하고 있으며 국가의 근본정책인 중화학공업까지 축소조정하고 있는 이때, 양계업계가 무얼 그렇게 크다고 많은 비중을 두겠느냐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정책만큼은 장려하는 희망을 주기 바라는 것이다. 희망이 있으면 현재가 좀 어렵드라도 업계는 견디며 노력하게 마련이다. 주유종탄(主油從炭)이나, 혹은 주탄종유(主炭從油)의 에너지정책이나를 논의하듯이 쇠고기가 국민의 주육류식품이나 혹은 닭고기를 국민의 주육류식품으로 할 것이냐를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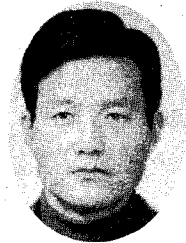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가장 큰 취약점은 시

설과 유통으로 생각된다. 양계업자는 앞으로 안정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시설은 재이익이 나올 수 있는 투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가. 생산자의 시설문제
- 나. 양계업에 대한 생산자의 사업관과 금지문제.
- 다. 인력확보문제(직원의 복지후생문제)
- 라. 계구밀도의 증가에 따른 질병문제
- 마. 생산물 유통문제
- 바. 정확한 통계자료와 정보문제
- 사. 업계의 지도자급 인사들의 업계발전을 위한 술선수법문제.

행정력이 뒷받침하는 적극적 생산조절 있어야



박 병 희
(관교육계단지장)

1. 이번 불황은 첫째 부화장, 사육자 할것 없이 1977년부터 1978년까지 2년간에 걸쳐 무계획적인 과잉생산을 한데서 연유되었으며 이 과잉생산의 동기는 수익성있는 출하가격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 하겠읍니다. 둘째는 부화업계의 외국종제도입개방에 있다고 봅니다.

사육자는 초생추구입이 어려웠고 종계농장

에서는 부화장에 요청하는 P·S분양 가격이 높으면서도 요구하는 수의 종계를 만족하게 공급하지 못했으며 이에 불만족한 사육자 및 부화장에서는 종계도입개방이라는 문제를 관찰시킨 결과 과잉생산된 초생추는 외상및 위탁 또는 제란값으로 사육자에게 공급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수요공급의 균형을 잃고 오늘날 같은 불황이라는 문제점을 탄생시켰

다고 보겠습니다.

셋째는 양계산물 생산조절지도를 해야 할 농수산부와 양계협회, 축산진흥회에서는 생산조절의 지도자적 위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추지 못한채 수급조절의 안정을 시도하므로써 한낱 백일몽과 같은 상태로 문제점을 해결치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2. 1978년 10월 중순부터 불황이 시작되어 1979년 5월초까지 무려 7개월간 계속된 불황으로 약 30% 감산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7일을 전후하여 출하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계절적으로도 초복, 중부, 말복 물량출하의 재미를 보기 위해 다시 입추하기 시작하였고 불황의 7개월 동안 냉동비축된 많은 물량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큰기대를 걸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만일 호경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역이 뉴캐슬 상재지역이면서 뉴캐슬 방역 효과 불확실로 오는 전염병으로 많은 물량이 희생된다고 보면 적자생존격으로 살아 남은 생산물은 급상승하는 시세에 호황을 누릴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3. 법 또는 행정규제로 부화조절 및 사육자 생산조절입니다. 둘째로는 소비 촉진입니

다.

4. 생산자 등록으로 정확한 통계위에서 생산조절을 하기전에는 과거나 미래할 것 없이 오늘과 같은 불황의 세는 항시 상존 하므로 호황 뒤에 불황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5. 첫째 조속한 시일내에 생산자 등록으로 정확한 통계를 갖추고 생산조절에 임해 주실 것.

둘째, 양계산업을 전담하는 양계 진흥회를 설치 생산물유통 및 저장, 가공, 수출, 통제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셋째,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입을 중단하여 국내축산농가의 보호책을 강구하실 것.

넷째, 축사신축 및 증축에 있어 신고 사항으로 건축법규제에서 해제해주실 것.

다섯째, 좋은 축산정책이라면 장관이 바뀌어도 시책은 조변석개로 변화시키지 말 것.

여섯째, 축산진흥의 일환으로 면세 혜택을 연장해 주실 것.

6. 양계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우리의 힘으로 난관을 타개하고 우리 스스로 생산을 조절하여 계속적인 호황을 누리고 불황을 타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업계의 극심한

불황을 양계인 스스로가 생산조절과 소비촉

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하루속히 종식시켜

야겠습니다.

브로일러업 불안한 회복세 보이고 있으나 산란계업계 불황은 장기화될 추세

編輯 部

장기간의 호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주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조건을 구비한 불황이었다.

브로일러 업계는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듯 하나 아직도 불안한 요인이 많이 있다.

산란계의 경우는 몇개 부화장이 전국 산란 조생추 수요를 공급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앞으로 산란용 조생추 부화는 더 많은 연구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번 불황의 원인에 대한 업계 의견은 다음 몇가지로 집약 되고 있다.

첫째, 75년 부터의 일찌기 불수 없었던 호황은 우리업계에 자금 여유를 주었고 이 자금은 생산규모 확대에만 투자되어 과잉 생산을 가져오게 하였다.

양계인의 직업의식이 결여되어 철새처럼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모여들고 불황이오면 떠나가는 현실정으로는 년중 가격진폭이 너무 크고 생산성향상이나 유통구조 개선, 소비확대 등에는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양계업에서 축적된 자본도 일시적 확대생산에 투자하는 외에는 부동산 기타 산업으로 전용 되는것이 대부분인것도 문제이다. 과잉

생산이 되었을 경우 조속한 생산조절 보다는 상호경쟁의식으로 다른 동업자가 먼저 쓰러지기를 바라고 그후의 호경기를 꿈꾸며 버티는 힘이 생긴것도 불황이 장기화 되는 이유로 지적 되었다.

뉴캐슬이 생산조절을 담당하는 것처럼 자원낭비와 비극은 없을 것이다.

이번 불황이 이나마 조기에 회복되는데 뉴캐슬의 공헌이 컸다는 것은 많은 반성을 하여야할 문제이지 뉴캐슬병을 생산조절을 위한 필요악으로 정착되어가는것을 크게 경계하여 불식 시켜야 될것이다. 대규모화 하는 현재의 사육 여건으로는 나도 언젠가는 피해자가 된다는 입장으로 공동 방역에 임해야 되기 때문이다.

둘째, 소비위축을 들수있다. 정부가 무모하리 만큼 쇠고기 돼지고기를 무제한 값싸게 방출 한것은 우리나라 축산업이 정부의 시책 여하에 따라서는 불과 몇달을 버틸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였다. 소비자는 오직 애국심만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앞으로 닭고기 소비선전을 함에도 애국심

에 호소하는것 처럼 효과가 없는 방법을 지양 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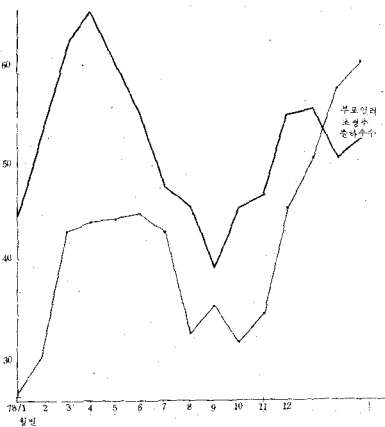
닭고기의 소비구조 유통구조의 전근대적인 것에 소비를 위축 시키고 있음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다. 현재의 유통구조와 요리 방법으로는 닭고기를 많이 먹어 달라고 외치는 것은 돌아오지않는 메아리로 그칠 공산이 너무 크다. 우유의 경우 휘모스트 상륙으로 크게 소비가 신장되어 전체 우유 소비량의 절반 가까이 아이스크림류라는 점과 음료수의 경우 코카나 뽕시의 상륙이 우유(生乳)를 비롯한 여타 음료수 소비위축을 가져온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소비 신장만을 기다릴수 없게하는 예라고 할수있다.

여기에 금년부터 석유위기와 물가안정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소비절약 운동과 긴축정책은 더욱 소비를 위축시켰다.

병의 원인을 알면 치료를 위한 처방은 명확하여진다.

첫째, 수요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 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월별 부로일러 초생추 출하수수와 부로일러 사료소비량.



특히 작년후반기와 금년초에는 사료소비량과 초생추 출하통계가 반대로 되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합사로 생산량 초생추 출하통계 종계확인수수등이 우리가 조사하고있는 통계의 전부인데 이 세가지 통계가 각기 서로 큰 차이가 있어서 어떤 통계를 믿어야 될지 당황할 때가 많다. 다행히 축산진흥회에 조사부가 생겨 앞으로는 기초 기반조사가 정확히 실시되어야 되겠다.

정확한 통계자료로 수요 공급을 예측하여 장단기 양계산물 가격 예보를 하므로써 PS 또는 CC단계에서 생산조절을 하므로써 불황을 사전에 막을수 있다.

둘째로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있는 계절화운영이나 쿼터제등도 우리실정에 맞도록 연구하여 생산자는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력할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다.

셋째로 각종 규제로 계산물의 생산비가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수입 육류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것도 문제이다.

사료품질 저하로인한 사료요구율이 높아지고 각종 질병피해등과 종계의 능력저하등 지나친 규제와 통제가, 품질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넷째 정부의 양계산업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종합적인 양계진흥계획의 수립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지도를 요망하고 있다.

정부는 양계진흥계획 집행후에는 평가실시를 반드시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네째로 양계업자 스스로 생산자 단체인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양계업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설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양계업자가 주체가 되어 양계산물의 제품 다양화 고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유통구조와 소비구조를 개선하 업계지도자가 이러한일에 출선수범 할때 불황은 우리와 먼 단어가 될것이다.